



제 397 호 2015년 6월 10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log.naver.com/cityansan

twitter.com/ansancityhall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3면 특집 / 성호문화제

제19회 성호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05면 생태·관광

체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즐거운 감자 캐기 함께 해요

07면 문화·예술

정문규미술관,
복합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해

10면 숲의 도시, 안산

도심에서 제대로 숲을 느끼다!
'노적봉공원' 이야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및 대처법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신종 감염병입니다.

⚠ 주요증상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 그 외 두통, 오한, 콧물, 근육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잠복기 : 2일 ~ 14일

⚠ 예방수칙

- 비누로 손을 자주 씻고 비누가 없는 경우 손세정제 사용.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일회용 티슈로 입을 가리세요.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대처요령

- 37℃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상황실 운영

의심 시 신고 및 상담

• 안산시단원보건소 : 031-481-2553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 상황실 주요추진 상황

- **중동호흡기증후군 행동지침 및 홍보물 배부**
 - 의료기관, 시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관내 도서관, 전철역사, 요양원 등
- **격리 외래실 운영병원 4개소 확보**
 - ※ 격리병상 2곳, 10병상확보(캠핑카를 활용한 10병실 추가확보 추진)
- **자가 격리자 1:1 밀착관리 체계 구축**
 - 격리자 1명당 2인 배치
- **접촉자 신규 자택격리 조치 및 물품지원**
 - N95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전달 및 주의사항 안내
- **자가 격리자 부식지원**
 - 쌀, 생수, 부식 등
- **방역 등 물품보유 및 배포현황**
 - N95마스크, 덴탈 마스크, 개인보호구(LevelD)세트(보호복, 장갑, 덧신, 고글)보유
 - 손 소독제, 손 세정제, 살균소독제, 유한락스, 살균제(스프레이형) 배포
- **각종행사, 교육, 체육활동 등 잠정 연기 및 취소**
-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관련 유관기관·단체 ‘메르스 예방수칙’ 문자 발송**
- **메르스 확산 예방 관련 지역상인 협조 요청**
 - 메르스 확산예방 협조 요청 : 80개소
 - ※ 전통시장 1, 대규모점포 35, 준대규모점포 29, 주요 상점가 15
-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막 방역 실시**
 - 손 소독제 비치, 메르스 예방 안내 포스터 게시

- **시민시장 운영 일시 중단**
 - 2015. 6. 10 ~ 메르스 확산 안정기 까지
- **복지시설 지원 : 2,369개소**
 - 메르스 대응지침 및 예방 안내 포스터 배부, 이용인 위생 교육 실시
 -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시설 내부 청소 (소독용 알콜 사용)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예방 홍보**
 - 관리사무소에 예방 협조 공문 발송 (106개소)
 - 공동주택단지 자체 행사, 집회(알뜰시장 등) 자체 요청 및 자체 방역 홍보 요청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상 예방 홍보**
 - 정비사업조합에 예방 협조 공문 발송 (19개소)
 - 재건축조합 총회 및 행사 연기 요청 및 자체 예방 홍보 요청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소독 강화 지시 : 약 1,700대**
 - 법정 버스 소독 월 1회를 주 1회로 강화
 - 시외버스터미널 소독 강화 및 손세정제 비치, 홍보물 부착 완료
- **기침 승객을 위한 차 내 마스크 비치 완료(경원, 태화 비치)**
- **시내버스 차량 내 손세정제 비치 완료**
- **전철 4개 역사 손세척기 설치**
 - 손세정제 각 역사 2정, 마스크 40개, 홍보물 및 포스터 비치
- **중앙, 관산, 감골도서관, 여성비전센터 등**
 - 직원 마스크 구입·비치(540개, 작은도서관 포함)
 - 손 소독제 비치, 메르스 예방 안내 포스터 게시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바로알기

감염증상 신고

- 1 메르스 의심환자란?
- 1. 발열과 폐렴증상이 있는데 14일 이내 중동지역 방문
 - 2. 14일 이내 중동을 다녀와서 발열과 폐렴이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 3.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 근무 또는 방문
 - 4.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와 밀접접촉

- 2 중동지역은?
-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메르스 의심환자는 본인과 가족, 다른 국민들을 위해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신고를 꼭 해주세요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CoV) 바로알기

생활 속 예방 수칙

- 물과 비누로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중동지역 여행시에는 낙타와 접촉을 피할 것

메르스 의심환자는 본인과 가족, 다른 국민들을 위해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로 신고를 꼭 해주세요



전통민속놀이체험마당에서 투호놀이하는 모습



젊은전통예술인들의 한마당에서 줄타기하는 모습



제2회 실학골든벨



지역문화예술제로 자리 잡은 제19회 성호문화제,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성호공원과 이익선생 묘역에서 열린 '제19회 성호문화제'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특히 성호 이익선생의 묘와 기념관이 있는 성호공원에서 열려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문화제는 이익선생을 기리는 송모제를 시작으로 삼두회 체험마당과 성호백일장, 성호사생대회, 전통예술공연, 와리풍물놀이와 둔배미놀이 시연이 펼쳐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시간이 되었다.

장영숙 씨(외동, 59세)는 "지난 4월에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어디가 어딘지 낯설

지만 볼거리와 쉴 곳이 많은 것 같다. 둔배미놀이를 재미있게 봤다. 가능하면 나도 내년에는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익선생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기와 버금가는 콩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성했던 '삼두회'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체험마당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고, 맷돌에 콩을 갈고, 메주를 만들어 보면서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콩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기 위해 고심했을 이익선생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짚으로 엮은 꼬마메주를 들고 있던 차예림 양(서울, 13세)은 "연휴를 맞아 할머니 댁에 왔는데 근처에서 행사를 한다기에 찾아왔다. 할머니는 둔배미놀이랑 전통예술공연을 재미있게 보셨고 저는 민속놀이체험이랑 삼두회 체험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체험장 한편에 세워진 성호사상 패널은 이익선생의 생애와 사상, 「성호사설」에 담긴 내용을 발췌한 후 삽화를 곁들여 전시해 초등학교 학생들도 패널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십자말퀴즈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했다.

흥겨운 팽과리 소리에 이끌려 간 곳은 전통예술공연장 앞. 풍물마당 터주의 사물놀이

를 시작으로 상록초등학교 가야금 연주, 판소리명창 정유숙의 판소리, 각골초등학교 한국무용, 안산경기민요단, 한양대 BJ Dance Group의 공연으로 꾸며져 객석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정유숙 명창의 심봉사 눈뜨는 대목에서는 객석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나오는 등 우리 가락에 흠뻑 빠져든 모습이였다.

성호 이익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안산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 인물임을 알리기 위해 열리는 성호문화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실학과 이익선생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위해 기획된 고등학생 대상 '제2회 실학골든벨'에서는 경기모바일과 학교등학교 전선홍 학생이 장원을 차지했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이익선생 송모제'를 기다리

전통 유교식 제례에 담긴 경건함



이익선생 송모제 제관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

매년 5월, 이익선생 사당에서는 이익선생 송모제가 열린다. 송모제는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고매한 인품을 송모하고자 매년 전통 유교식 서원제로 개최된다.

송모제가 열리는 11시쯤, 이익선생 묘소 오른쪽에 위치한 사당 앞에는 단채로 견학 온 초등학교생들과 많은 시민들이 송모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문이 잠겨 있는 이익선생 사당에서 전통유교식 제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

내는 사당 침성사 앞에는 제례음악을 연주하는 안산시립국악단과 13명의 제관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송모제의 제관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초헌관(初獻官)은 신위에 첫 번째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는 제관으로 안산시장이 맡고, 아헌관(亞獻官)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안산문화원 김봉식 원장이 맡았다. 종헌관(終獻官)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여주 이씨 후손 이필만 대종회장이 맡았다.



안산시립국악단의 제례악 연주

송모제는 유교식 제례 순서를 읽는 집례의 지시로 진행되며, 헌관과 집사들은 찬인의 인도로 움직였다. 제사 의례 사이사이에는 경건한 분위기를 더욱 고양시키는 제례악이 안산시립국악단의 연주로 진행됐다.

성호 이익선생의 후손 이필만 대종회장은 "여주 이씨의 선조이신 성호이익 선생의 숭결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인지 이곳에 올 때마다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아늑한 기분을 느낀다."며 "매년 성호 이익선생을 기리는 행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안산시민과 관

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5년 동안 이익선생 송모제의 제물을 준비했다는 향교 유도회의 이정숙 씨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며, 송모제가 끝난 후 근처에 있던 관람객들에게 향아리에 있던 술을 한잔씩 건넸다. 이익 선생의 운순하고 화평한 마음이 봄바람처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안산이 낳은 조선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星湖 李瀾)

“100권의 저술,
별 같은 제자를 길러낸 초인(超人)”

성호 이익은 1681년(숙종 7) 10월 18일, 아버지 이하진의 유배지인 평안도 운산(雲山)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성호가 두 살 되던 1682년(숙종 8) 여름, 귀양이 풀리지도 않은 채 그곳에서 세상을 버렸다. 이처럼 성호의 생애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됐다.

어린 성호를 키운 것은 편모인 권씨 부인이었지만 그를 학문의 세계로 이끈 것은 둘째 형님 이잠(李潛)이었다. 스물두 살 터울로 마치 아버지 같고 스승 같던 이 형님마저 성호의 나이 26세 되던 1706년(숙종 32), 진사의 신분으로 서인(西人) 중신(重臣)의 잘못을 임금께 상소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곤장을 맞고 작고했다. 연이은 당쟁의 환난

(禍難)이었다.

일 년 전인 1705년(숙종 31)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답안지[科紙]에 적은 이름(錄名)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제2차 시험인 회시(會試)에 나가지 못했다. 이후 그는 과거를 작폐한 채 학문에만 몰두했다.

기다리던 외아들 맹휴가 태어난 1713년(숙종 39)부터 본격적인 저술 활동을 시작한다. 성호의 학문이 알려져 많은 제자들이 안산으로 찾아든 것은 그의 나이 30대부터였다. 또한 47세 때에는 나라에서 그의 학문과 덕행(德行)을 듣고 몇 차례 벼슬을 내리고자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일동에서 농사지으며 학문에만 정진하였으니, 그가 주장한 '사농합일(士農合一)' 즉, '선비는 농

사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저히 실천했다.

60대 이후, 본래 병약했던 그는 가슴에 악성 종기가 심해지고, 병을 다스리는 동안 가산은 탕진되어 경제적 몰락과 모고(困苦)를 겪는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임종할 때까지(83세) 세상을 위한 실용·실증의 학인 경세치용의 학문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세상을 떠나기 몇 개월 전 1763년(영조 39), 영조는 고령의 노인을 우대하는 나라법에 따라 성호에게 정3품 당상관직인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벼슬을 내렸다. 같은 해(1763) 11월, 병상에 들어 12월 설날 17일, 정침에서 임종했다.

1. 성호사설(星湖僞說)



성호의 대표적인 저서로 40여 년에 걸쳐 쌓인 성호의 글들을 성

호가 8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집안의 조카인 이병휴 등이 정리한 책이다. 천문, 역사, 제도, 경제, 제사, 풍속, 서학,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백과사전 형태의 책이다.

2. 성호문집(星湖文集)



성호문집은 시(詩), 부(賦), 서(書), 잡저(雜著), 서(序), 기

(記), 제발(題跋), 제문(祭文), 묘갈명(墓碣銘),

묘지명(墓誌銘), 유사(遺事), 전(傳), 행장(行狀), 가장(家狀) 부록 등이 방대하게 실려 있다. 성호문집은 27책의 퇴로본과, 36책의 사포본 두 종류가 있으며, 성호기념관은 두 종류 모두 소장하고 있다.

3. 이자수어(李子粹語)



이자(李子)는 퇴계에 대한 존칭이며, 수어(粹語)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뜻이다. 성

호선생이 퇴계 이황(1501~1570)과 그 제자들의 글 중에서, 학문과 인격수양에 긴요한 글을 가려 뽑아서 종류별로 엮은 책이다. 이익의 학통을 있는 사람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처음 교재가 바로 '이자수어'였음은, 성호학이 퇴계의 학통을 잇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성호에 있어서, 실학을 중시하는 저변에 경학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였음을 알려준다.

4. 성호질서(星湖疾書)



질서란 빨리 쓴 글이란 뜻으로 겸손의 표현이다. 유교경전에 대한 성리학적인 해석을 교조적으로 따르지 않고 성호선생이 직접 경학에 대한 비판적이고, 고증학적인 연구들이 담겨 있다.

• 자료제공 : 성호기념관 ☎ 031-481-2574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제19회 성호문화제, 성호 이익 선생의 애민사상과 학문세계 짚어

일생을 안산 첨성리(現 상록구 일동)에 머물면서 실학사상을 꽃피운 성호 이익선생은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의 귀감이요, 안산시의 큰 자랑이다.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성호공원 일대에서 안산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제19회 성호문화제'를 통해 안산시민 모두가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선생의 애민사상과 학문세계를 짚어본다.

“선비란 무위도식의 다른 이름이요, 일하지 않는 선비는 쯤벌레이다.” 조선후기 선비이자 실학사상의 원류이며 학문에 능통했던 성호 이익선생은 학문적 몰두와 성과 이전에 '선비가 할 일은 무엇인가', '노동하지 않는 선비가 인간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경세치용학파의 대표자가 되었다.

현실생활을 도외시한 공허한 관념의 유희만을 즐기던 당시의 학문풍토를 비판하고,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경세치용적인 경학을 주장한 선생의 실증적 사유는 새로운 인식을 낳게 되면서 세계관의 확대와 역사의식의 심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민족의 주체성을 밝히는 데까지 나아갔다.

객관적이며 경험론적으로 사물을 인식한 선생은 삶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인간을 중

시해 실존적 본성을 재발견하고 인간 마음의 역할과 감정의 근원을 살펴서, 인간애를 실천할 사회 개혁 사상을 주장했다. 가혹한 노비제와 서열차별의 사회상을 비판, 천인도 과거에 응시하게 해 다양한 인재를 등용시키고, 노비의 수를 줄여 양인이 늘어나면 국가의 조세와 부역 또한 많아져 국가의 재정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고향인 안산의 농촌에서 일생동안 농민들과 지내면서 농촌사회의 경제적 몰락을 실지로 체험하기도 했던 이익선생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과 상업·고리대자본으로 인해 농민이 아닌 자들의 농지 소유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농사짓는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이탈이 되자, 적은 농사를 짓는 농민을 구제하는 토지 제도로 한 가구당 오늘날의 1,500평에 해당하는 50묘 정도의 영업전을 한정하여 기본적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균전론(均田論)'을 제시, 농업을 기본산업으로 하여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중농주의' 사상을 세웠다.

성호 이익선생의 이러한 제도개혁안들은 이상론(理想論)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된 경세치용학(經世致用學)이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의 대표 음식,성호之休 ‘삼두밥상’



〈삼두회(三豆會)〉

삼두회는 성호 이익이 콩으로 만든 세 가지 음식인 콩죽, 콩나물, 된장을 차려 놓고 친척들을 중심으로 개최한 시회(詩會) 모임이다.

이익은 안산에 머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때에 직접 콩농사를 지어 황두즙을 끓인 콩죽, 황두채를 절인 콩나물, 황두메주를 담가 만든 된장이 세 가지를 먹거리로 겸소한 생활을 실천했다.

또한 삼두회를 통해 음식에 사치하는 탐관오리들을 비판했으며, 굶주림에 고생하는 백성들의 식생활에 무엇보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콩을 곡식 중에 으뜸으로 꼽고 콩에 대한 예찬시 반숙가(半菽歌)를 남기기도 했다.

〈성호지휴 삼두밥상〉

성호지휴 삼두밥상은 성호 이익이 콩죽, 콩나물, 된장을 나누며 실천하고자한 실학정신과 겸소함, 콩의 유용성 등을 살리고 오늘날 현대인의 입맛과 건강에 맞도록 재구성해 안산의 특화음식으로 개발됐다.

〈성호지휴 삼두밥상 시범업소〉

- 한양대 에리카 한식당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031-436-8080)
- 이천영양돌솥밥 (상록구 향가울로 7 ☎031-408-2008)
- 선유도 (상록구 명이길 19 ☎031-415-5060)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일석이조, 체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즐거운 감자 캐기 함께 해요

단원구는 도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농촌체험과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원플 생태농장 감자 캐기 체험학습장을 6월 17일부터 개장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자캐기 체험행사는 지난 3월 청사 뒤편 유휴지 3,300㎡(약 1,000평)에 강원도 씨감자 500

kg을 심었으며 수확을 앞두고 각 가정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체험 참가비는 어린이(1인) 2,000원, 가족(4인이하) 10,000원이며, 체험 참가자는 수확한 감자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감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도심 어린이들이 그들

안 책으로만 보아왔던 것들을 직접 캐보고 만져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신비로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창의성과 인성계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또는 어린이는 6월 4일부터 이메일(monzi@

korea.kr) 또는 팩스(☎ 481-6571)로 선착순 접수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시청, 단원구청)를 참조하거나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481-6116)로 문의하면 친절 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생태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야생화가 있는 꽃길 하천 조성’



안산시는 시민들이 하천과 교감하고 하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하천에서 유해외래종 제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하천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자원봉사단체, 기관단체와 시민 등 약 1,100여 명은 번식력이 강해 토종 야생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인 환삼덩굴, 가시상추 등을 제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해 외래종 제거 및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하천 옆 빈 공간에 수레국화, 패랭이, 벌노랑이 등 야생화 씨앗을 심었다. 또한 시민들이 정화활동으로 인해 깨끗해진 공간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면서 힐링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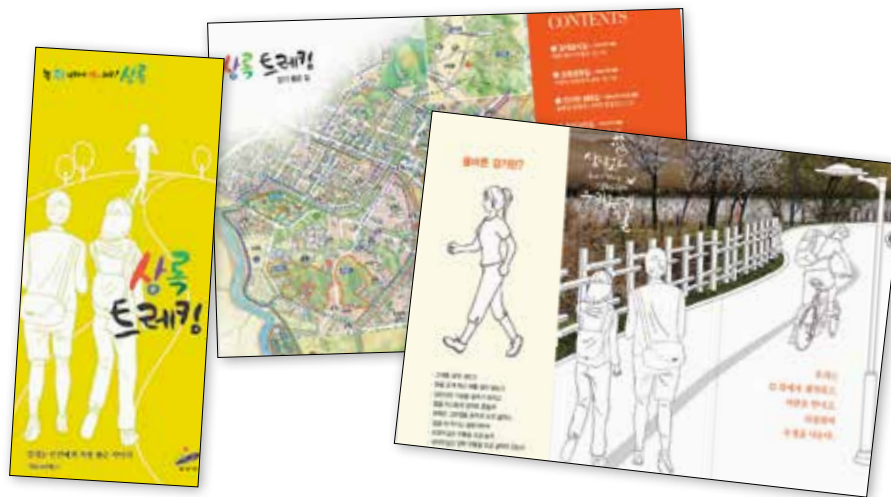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와 연계하여 생태하천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하천구간을 지정하여 식재관리, 외래종제거, 정화활동 등을 통해 숲의 도시 하천으로 거듭나 시민들에게 언제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안산시 건설과



상록구, 걷기 좋은길 ‘상록트레킹’ 제작·배부 ‘길 위에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며 우정을 나눈다’



상록구는 걷기좋은길 ‘상록트레킹’을 제작·배부한다.

금년 2월부터 상록구의 걷기 좋은 길 사전 조사·답사를 통해 9곳의 길을 담은 ‘상록트레킹’은 길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볼거리 등을 이야기 형식으로 제작, 단순히 길을 안내하던 기존의 안내지도의 틀에서 벗어나 직접 길을 걸으며 자연과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록트레킹’의 구성은 상록구에서 가장 풍광이 아름다운 갈대습지길을 비롯한 도심 속 길 5곳과 가까운 곳에서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노적봉 산책로를 포함한 4곳의 숲길을 담았다. 지도에는 각 길의 코스안내와 풍광사진을 비롯해 걸으며 감

상하기 좋은 관람 포인트 안내까지 실어 적은 분량임에도 알찬구성으로 시민들이 한장의 지도처럼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상록트레킹’에는 걷는 길뿐만 아니라 자전거길 안내는 물론 공공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페달로 정류장을 표시해 도심 속에서 트레킹과 하이킹을 함께 즐기려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민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는 ‘상록트레킹’은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비치한다. 앞으로 ‘상록트레킹’을 통해 상록구에 걷기열풍이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자료제공: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밥상 산채정식



'산채정식' 이은숙 대표

송호맛길 한 편에 자리 잡은 '산채정식'은 20여 년 전통을 자랑하며 손님들에게 건강밥상을 제공하고 있다.

오가피나물, 취나물, 표고버섯, 민들레 등 여덟 가지 제철 나물과 기본 반찬, 된장찌개, 전, 파곤한 돌솥밥이 나오는 한상에는 푸근한 어머니의 손맛과 고향의 정감이 담겨 있다. 메뉴에 따라 더덕·황태구이가 제공된다.

태백정식(태백산 줄기 따라), 한라정식(한라산의 수려함), 백두산정식(백두산 정기 받아) 등의 메뉴와 '두목'이라는 닉네임이 새겨진 명함에는 이은숙 대표(57세)의 정성과 철학을 담았다.

이 대표는 충남 서천에 사는 친정오빠가 직접 재배하는 농산물과 쌀을 식재료로 쓴다. 계절별로 바뀌는 여덟 가지 나물도 원산지를 따져 구매하고, 가지, 호박꼬지, 취나물 등 웬만한 재료는 직접 손질해 햇볕에 말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양념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20년간 거래한 방앗간에서 짬 들기름, 친정오빠의 고춧가루와 깨, 소금은 2~3년 동안 간수를 빼서 사용한다. 양상동 전원주택의 넓은 마당에는 고추장, 간장, 된장이 30~40개의 항아리에 담겨 '산채정식' 고유의 맛을 내고 있다. 새우젓과 멸치젓도 직접 담근다.

22년 전 중앙동에서 시작한 '산채정식'은 10년간 꾸준히 단골손님을 만들며 그 이름을 알렸고, 중앙동 상권이 점차 젊은 세대 위주로 바뀌어감에 따라 송호맛길로 이전을 했다.

1, 2층 합해 60평짜리 식당에서 또 12년이

흘렀다. 이 대표는 "여기서 청춘을 다 보낸 것 같다."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챙겨주지 못해 마음 졸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IMF 등 경기불황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자라주어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처음 데이트 코스로 찾아왔던 고객이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세월이 흘렀죠."라며 남다른 보람을 얘기한다.

이 대표의 나물요리는 과학적 계량보다는 경험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손맛이라고 한다. 나물반찬은 초보 주부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품목이다. 이 대표는 '적당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나물 레시피를 설명한다.

볶음나물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센불로 볶다가 물을 적당히 넣고 조식간장으로 간을 한 뒤 약불에서 뚜껑을 덮고 20분쯤 뜸을 들이라고 알려준다.

인기맛집 비결은 '정직'이라며, "화학조미

료를 쓰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듭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그릇도 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명숙 씨(50세, 고잔동)는 "집밥이 먹고 싶을 때 종종 찾아옵니다. 외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여기 음식은 소화가 잘 되요. 넓은 창밖에서 흔들리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나무 그릇에 담겨 나오는 나물들을 먹다 보면 절밥을 먹는 것 같은 정갈함이 느껴져요."라고 말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생각날 때,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오랜 지인 같은 두목의 건강밥상에 담긴 '진심' 한상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 문의 : 산채정식 (☎ 031-407-6344)
• 주소 : 상록구 송호로 20 이레빌딩 (이동 659)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안산시, '제3회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위한 안산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모아



"청년실업과 함께 청년들의 주거문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제 아이디어가 사회적 기업 창업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사회적 서비스와 복지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산시 제3회 사회적 경

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가 채택된 참가자의 소감이다.

IMF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와 고령화 사회 진입, 청년실업 등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해소하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산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아졌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3회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안산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번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는 창업 아이디어로써 사회적 경제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학생부터 주부, 어르신까지 많은 사람이 지원해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안 마련으로 가속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안산 무슬림 공동

체를 위한 음식점, '대부도 친환경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 '슈가테라피', '테크집, 가치(같이)극장', '나눔백', '주택공사 매입임대 주택 사업 아웃소싱' 등 7개 아이디어 중에서 안산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음식점, '대부도 친환경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 '슈가테라피', '주택공사 매입임대 주택사업 아웃소싱' 등 4개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각 100만 원의 상금과 경영·회계·법률 분야 프로보노와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창업 아이디어 인큐베이팅과 컨설팅, 우수 아이템 창

업자금 1천만 원이 지원된다.

'제3회 안산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주관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현수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학생부터 주부,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다."며 "선정된 아이디어와 지역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안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1-481-3521)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미술관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다양한 예술을 즐겨볼까요?”

정문규미술관, ‘서양미술사 강의’와 ‘신예작가전’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정문규미술관

지난 5월 19일, 정문규미술관에서는 미술 평론가 조이한의 재미있는 서양미술사 강의가 열렸다.

이번 강의는 4월 14일부터 △미술과 친해지기, △미술 읽기와 보기, △그림을 통해 보는 남성의 역사, △여성성과 미술, △예술과 사회를 주제로 5회에 걸쳐 진행됐다.

조이한 강사는 부산 비엔날레에 쓰인 문구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를 화두로 제시한 뒤, 귀스타브 쿠르베 <돌 캐는 사람들>, 피카소 <게르니카>, <한국전쟁>, 몽크 <절규>, 필리프 수포 <얼간이의 초상>, 요셉 보이스의 <야생 코요태 길들이기>, 한스 하케 <마네 프로젝트>, 바바라 크루거의 사진예술 작품, 뱅크시 <꽃을 투척하는 사람> 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예술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난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왕과 신화, 귀족 등을 소재로 하던 그림에 노동자를 등장시킨 귀스타브 쿠르베는 리얼리즘을 선언하며 정치이념과 예술의 양식을 일치시킨다. 전쟁의 실상을 그린 피카소, 무정부주의자로

논란을 일으키며 추방된 노르웨이 화가 몽크, 관객 모독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필리프 수포, “예술로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카셀시를 푸르게 만들었다”라며 삶을 예술로 만든 요셉 보이스의 일화를 들은 청중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바바라 크루거는 사진이나 그림, 글씨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등 글귀를 달아 관객들을 일깨운다.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뱅크시는 세계 각국 도시의 건물이나 벽에 세상을 비트는 촌철살인 낙서와 익살스러운 그림을 그려놓고 사라진다. 이들의 허를 찌르는 짧은 경구나, 미소와 고소를 같이 느끼게 하는 그림은 대개 세상의 권위에 도전한다.

먼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주 동안 강의를 들은 반경숙 씨(50세, 고잔동)는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남성·여성의 그림과 역사, 예술과 역사·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강의 덕분에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던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문화가 곧 시민의 힘’이라고 생



강주현 ‘SKIN SUIT - RIDER’

각합니다. 시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변에서 이런 강의를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문규미술관 정종산 실장은 “한 회 한 회 거듭할수록 청중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번 미술사 강의를 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안산시민의 문화수준이 높아졌다는 반증일 테구요. 조만간 조이한 선생의 강의를 한 번 더 진행해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미술관 1층 카페에서 미술사 강의를 들은 청중들은 2층 전시실로 자리를 옮겨 ‘신예작가 7인전’을 감상했다.

미술관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작가들 중 공모를 통해 구나영, 이상민, 홍지영, 강주현, 류민지, 문예지, 엄기준 등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장르 7명의 신예작가를 선발해 1부 감각의 전이(Sensation Transference · 3월 27일~4월 26일), 2부 모모(Several Perspective · 5월 1~31일)로 나눠 작품을 전시했다.

디자인 요소를 도입해 반복을 통한 패턴화(구나영), 사실에 기초한 기호학적 체계(이상엽), 콜라주와 합성을 이용한 초현실화(홍지영)가 한 공간에 구성됨으로써 작품이 지닌 뚜렷한 감성의 범위는 중첩되면서 역설적이게도 작품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감각의 전이’가 이루어진다.

음악의 공감각과 언어의 의태어적 감각을



엄기준 ‘Welcome True Value-02’

사진을 매체로 표현하거나(강주현), 회화에 옴니버스 형식을 취하며(류민지), 사물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시켜 재료로 사용하고(문예지), 인문학적 사고를 통한 통찰을 팝적인 이미지로 전환(엄기준)하는 작품들은 장르별 드로잉 요소가 두드러지며 강한 역치를 표현한다.

이들 신예작가의 작품은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미술세계’에서 2차 전시를 한다. 또 내년 ‘국제경기안산아트 페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문규미술관에서는 월 1~2회의 연주회를 열고 있다.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전시와 연주회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공연장 문턱이 높아 공연 기회가 없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 유망한 음악가와 미술가들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은 이들의 꿈과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돕는다.

연주회는 주로 토요일 6시에 열리며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6월 13일에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하이라이트, 6월 27일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트리오 연주회를 준비한다.

• 문의: 정문규미술관(<http://정문규미술관.com>)
• 전화: 032-881-2753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n@hanmail.net)

단원미술관으로 그림 보러 가요!

‘행복의 바람이 불다’展 & ‘Vega로 가는 사람들’展

‘행복의 바람이 불다’展

단원미술관 전관에서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안산환경미술협회전이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환경미술협회전은 그림을 좋아하는 전문가와 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여는 전시다. 서양화, 수채화, 문인화, 만화, 서예, 드로잉, 서각 등 다양한 작품을 회원전으로 제1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2관에서는 안산환경미술협회 회원 8인(김용남, 문영애, 백묘숙, 이복희, 이시은, 정

일교, 최현균, 한응복)의 개인 부스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작품들을 플래카드에 인쇄(깃발전)를 해 단원미술관 인근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용남 회장은 “161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전시를 통해 한 번 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다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작품들을 편안하게 느낀대로 감상하면 된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게 그림의 주제다.”라고 했다.

‘Vega로 가는 사람들’展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오는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Vega로 가는 사람들’展이 열린다.

Vega로 가는 사람들展은 2014년 대한민국 국민이 겪은 많은 힘들음 극복하고 예술로써 치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전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고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모든 관람객에게 순수미술을 통해 잠시라도



김용남 ‘Memory’



이성복 ‘P2015-2’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지친 현대인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푸른별을 볼 수 있는 순수함을 찾길 바라는 전시다.”라고 말했다.

한국화, 서양화, 서예·서화, 조각, 공예·디자인, 판화, 동양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 31, 국외 5명이 참가해 총 36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 문의: 단원미술관 ☎ 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

상록노인복지관, ‘사조비빔밥 마을 합창단’



지난해 KBS 신년음악회 무대에 오른 사조비빔밥 마을 합창단원들의 모습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이면 상록복지관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다. 주인공은 바로 ‘사조비빔밥 마을 합창단’ 단원들이다. 사할린 동포와 조선족 동포, 내국인 어

르신 50여 명이 한데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되었다는 김순자 어르신(71세, 본오동)은 “그전에는 노래교실을

다녔었고 작년부터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통령 앞에서 노래도 하고, 방송국 음악회에도 출연했었다.”며 “노래를 부르다보면 마음이 기쁘고 좋다.”고 말했다. 힘겹게 살던 중국에서의 생활과 달리 노인들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좋고, 마음이 편하니 자잘하게 앓던 질병도 다 나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복지관 친구들도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 합창 연습을 하는 ‘사조비빔밥 합창단’은 2014년 3월 삼성복지재단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다양한 문화체험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요양원과 노인병원 등 문화적인 혜택이 필요한 곳의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공연을 하고 있다. 합창단을 이끄는 이춘자 단장은 “조금의 문화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려해주고 있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제창과 달리, 합창은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울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질 때의 그 느낌과 맛을 알게 되면 합창의 매력에 빠져들어 계속 하게 된다.”고 말했다.

모일 때마다 20여 곡을 연습하는 단원들은 시대별, 계절별, 애창곡 등 레퍼토리가 다양하다. 오는 9월에 있을 별망성 예술제 무대에 오르기 위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침밀밀’ (영화 ‘침밀밀’의 배경음악),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모스크바의 석양’, 내국인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아빠의 청춘’ 등 다양한 곡을 연습하고 있다. 파트별로 연습을 한 후 목소리를 맞춰야 하는 합창은 무대 위에 올라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며 관객의 박수를 받을 때 큰 보람으로 다가온다. 우구미 어르신(83세, 사동)은 “2000년에 입국해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합창 연습을 하러 복지관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서 좋다. 더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기 다른 맛을 내는 나물들이 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어우러질 때 세계인이 인정하는 맛있는 비빔밥이 되듯 각기 다른 목소리가 모여 하나로 울려 퍼질 때의 감동은 독창이 주는 매력과는 사뭇 깊이가 다르다.

김은미 명예기자 <ami34@hanmail.net>

안산청년 노마드(창업·취업) 포럼 열려

‘부딪치고 넘어져 깨지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있다면 성공한다’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지난 26일 상록구청 내 상록 시민홀에서 열린 ‘안산 청년 노마드(창업, 취업)포럼’은 취업난과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청소년들과 안산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담긴 강연을 마련했다. 노마드포럼 3회째를 맞는 이번 모임에서는 기업 마케팅의 핵심경쟁력인 디자인 담당자로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있는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와 공부의 신(공신닷컴) 강성태 대표를 통해 젊은 창업가의 도전과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기영 교수는 최근 유명해진 ‘허니 버터칩’의 마케팅 디자인 담당자로 잘 알려져 있다. 사물을 보고 읽는 관점을 넓히려면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상식과 전체의 틀을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져라.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뜨리는 창조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라.”였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관심 갖고 알고 싶어 하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공부의 신(공신닷컴) 강성태 대표는 학창시절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방향의 시간들을 견디고 만들어낸 이야기를 담백하게 들려주었다.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과 능력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봐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찾아기는 문화힐링

2015 거리로 나온 예술 6월 공연 일정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6월 ~ 10월 (5개월간)
- 일 시 : 매주 수요일 18:30 ~ 19:30, 수시(필요시)
- 장 소 : 상록수역 앞, 중앙역 앞, 안산문화광장, 기타 공원 등
- 주 최 : 경기도, 안산시
- 공연내용 : 음악, 춤 등 아마추어 예술인(동아리, 동호회)들의 다양한 거리 공연

□ 6월 공연

공연일시		장 소	공연팀	공연내용	비고
6.3 (수)	18:30	상록수역 앞	좋은 사람들 밴드	밴드공연	
	19:00		도리토리	어쿠스틱힙합	
6.10 (수)	18:30	고잔신도시 (참치거리)	포크패밀리	7080포크	
	19:00		나눔소리	사물놀이	
6.13 (토)	18: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아외공연장	더홀릭매직	마술	청소년 뮤직페어 행사장
	19:00		박기형	대금연주	
6.17 (수)	18:30	중앙역 앞	디사이즈잇	비보이	
	19:00		블랙퀸	난타공연	
6.23 (화)	18:30	안산문화광장	번개소리사	포크송	문화가 있는 날
	19:00		정시현 무용단	현대무용	

※ 공연일정은 날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우천시 취소)

중학생 자녀와 손잡고 걸어 보셨나요? 손 떼지 않고 공원을 걸어요~ 미션 완수!



초지중학교, 관계증진 실천 프로그램 학부모와 학생, 올바른 가치관 함양 학교폭력 예방·근절 기대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이 초지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초지중학교 강당에서 5시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날 만큼은 엄마가 아니라 자녀들이 저녁을 챙기는 모습이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김

밥을 챙겨 부모님께 대접하는 것은 모두 자녀들 몫이다. 다 먹은 후 뒷정리도 스스로 척척 해결을 한다.

식사가 끝나고 미션이 주어졌다. 자녀와 손을 잡고 학교 인근 호수공원까지 걸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엄마와 손을 잡고 함께 시계 꽃꽂이를 뜯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산책 시간을 가졌다. 공원에서는 부모님이 미리 써 온 편지를 읽으며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를 울고 웃게 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1학년 김남희 학생은 “이 활동을 통해 엄마랑 더 친하게 지내게 된 것 같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몸은 힘들었지만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자주 걸어야겠다. 그것도 오늘처럼 손잡고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도순 씨는 “집에서는 식탁에 앉아 받아먹기만 하는데 학교에서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게 느껴졌다. 최근 손 잡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 시간 손을 붙잡고 온기를 느끼며 이야기 나눈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들과 대화할 때 사물을 보는 시각이 감성이 아닌 추론이었는데 좀 더 아들을 이해하게 되어 좋고, 친구들과 사춘기를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초지중학교는 관계증진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내의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를 줄이고, 학급, 학교, 가정, 사회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성과 부적응으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계증진활동 내용은 4월과 9월(학기 초)에는 또래관계증진, 5월과 10월에는 가족 관계증진, 6월과 11월에는 사제관계증진, 8월 14일, 15일, 16일에는 태극기달기 홍보와 공동체관계증진(초지사랑 안산사랑 도보대행진)을 실시한다.

• 문의 : 초지중학교 ☎ 031-8040-847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함께 읽어요, 안산의 책” ‘2015 안산의 책’ 선포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추진 북클럽 모집 등 다양한 독서 활동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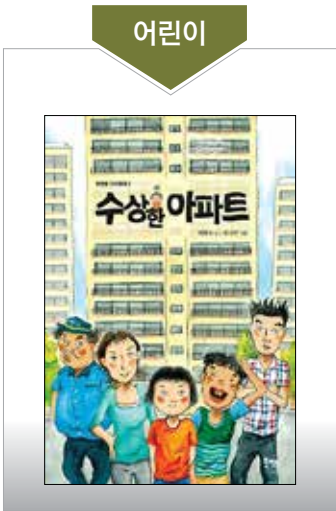
중앙도서관은 ‘함께 읽어요! 안산의 책’이라는 슬로건으로 ‘2015 안산의 책’ 세 권을 선정하고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안산의 책은 어린이부문 ‘수상한 아파트/박현숙’, 청소년부문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고정욱’, 일반부문 ‘투명인간/성석제’이다.

중앙도서관은 지난 4월 30일 ‘2015 안산의 책’ 선포식을 갖고 고정욱 작가의 ‘북 콘서트’를 열었으며, 오는 6월 23일에는 성석제 작가를 초빙해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마련한다. 안산의 책 선포를 시작으로 안산시 28개 공공·공립작은도서관에서는 올해 이 세 권의 도서를 중심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한다.

북클럽 등 참여팀(기관) 모집을 비롯해 독서감상문·감상화 공개모집(6월), 독서토론대회(9월), 도서관 책 문화축제(10월), 한 책 작가와의 만남,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행사를 진행해 시민의 적극적인 책 읽기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 문의 : 중앙도서관 ☎ 031-481-3866
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수상한 아파트」 박현숙/북멘토

이 책은 열세 살 소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좌충우돌 성장기이다.

이혼을 앞둔 부모님 때문에 잠시 혼자 살고 있는 고모네에 맡겨졌지만 밝고 당차게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소녀의 시선이 때로는 익살스럽고 때로는 재치 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보살핌의 소중함을 느끼며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점점 삭막하고 건조해지는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 고정욱/애플북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성교제’와 ‘청소년 성문화’를 재석이가 친구들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그동안 학교와 어른들이 애써 외면했던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관념, 그리고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른 성문화 등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성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 흥미진진하고 설득력 있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려냈다.



「투명인간」 성석제/창비

각박한 현실 속에서 투명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남자 김만수의 삶은 우리 시대의 지극히 평범한 개인의 일대기이다.

소설은 그의 가족을 비롯해 친구, 동료 등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이 차례로 화자로 등장해 그에 관한 에피소드를 회상하며 진술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만수의 일면과 장면들이 만수의 인생을 그려내고, 시대를 그려낸다.

만수는 물론, 등장인물들의 삶은 한국의 현대사이자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도심에서 제대로 숲을 느끼다 ‘노적봉공원’ 이야기

푸르름 가득한 노적봉공원 순환산책로



도심에서 제대로 숲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 노적봉공원. 노적봉공원 순환 산책로는 깊은 숲속을 걷듯 마음에 평화로움을 준다. 와! 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아치를 이루는 산책로 가로수들로 더욱 즐거운 노적봉공원.

노적봉 공원은 1998년 상록구 성포동 산 39-1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공원 총면적은 645,863㎡이며 노적봉은 해발 143m이다. 주요 시설로는 만남의 광장, 청소년수련관, 성포도서관, 폭포(재 공사 예정), 상징광장, 수변데크, 장미원, 주차장, 매점, 관리사무소, 화장실, 야외결혼식장, 순환산책로 등이 있다. 또한 단원미술관이 성포동 휴플러스 옆으로 이전하면서 노적봉 공원을 산책하며 미술관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순환산책로는 2007년에 폭 2.6m, 순환길이 2,570m, 연결로 포함 3,600m로 만들어

졌다. 산책로는 두께 20mm 총연장 2,800m 탄성칩으로 포장했다. 계단 3개소, 연계로(나드리길) 1개소, 기타 4개소 진입로가 있다. 2013년 순환 산책로 2단계 작업으로 순환 길이 869m를 새로 만들고 휴플러스·단원미술관·장미원광장에서 진입로를 만들었다.

장미원은 2004년 조성해 2005년 5월5일 개장했다. 약 4,900㎡의 면적에 41종 7,000그루장미를 심었다. 2014년도에는 장미원 리모델링을 통해 현 56종 8,000그루 장미가 심어져 있다. 족구장, 농구대,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과 뽕잎익히기, 거꾸로 메달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장도 있다.

노적봉공원은 안산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다. 노적봉의 유래는 산의 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형상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노적봉 정상에 서면 안산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며, 그중 서해로 기우는 낙조는 절경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노적봉에 5월의 선물이 가득하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선물을 확인할 수 없다. 노적봉공원에 갈 때는 편한 신발을 미리 준비하자. 그리고 순환산책로를 꼭 걸어보자. 노적봉은 안산 시민에게 선물이라 말하는 김종성 씨(성포동). 안산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노적봉과 함께 한 시간을 되돌아보는 감회를 들어보자.

1985년부터 안산에서 살았으니, 지금까지 산 세월만으로도 반평생을 안산에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적봉은 ‘내 놀던 옛동산’이 아니고 30년 동안 내가 놀고 있는 동산입니다. 지금 신도시가 그때는 넓은 들이었지요. 노적봉 종턱에만 올라와도 바닷가까지 펼쳐져 있는 일망무제의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노적봉도 많이 도시화되었지요. 이런 둘레길이며 여러 시설을 노적봉이

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적봉도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을진대 그 자리를 좀 내주어야지 어찌겠습니까. 노적봉은 이 마을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언제라도 와서 둘레길을 걸을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숲의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연습을 하여 가을에 있을 10km 마라톤 대회에 나갈 계획입니다. 이 코스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오르는 언덕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달리면서 느끼는 것은 골인 지점은 항상 조금 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나오면 겁 많은 사람이면 무섭다고도 할 만 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벌써 아주머니도 나와 걷고 아가씨도 나와 뛰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반가워요. 벚꽃이 필 때는 꽃 터널 속을 뛰고 여름에는 숲의 동굴 가운데를 달리고 가을에는 낙엽을 밟고 겨울에는 눈길. 이런 말을 들으면 노적봉이 기뻐하겠지요. 안산이 전국에서 도시 녹지율 1위라고 하는데, 보배로운 재산입니다. 숲을 가꾸는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니만큼 보수(補

修)가 없이는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나는 내가 사는 마을을 사랑하는데, 노적봉의 역할을 으뜸으로 삼고 싶습니다. 저 딱따구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딱따구리가 집을 짓는 소리입니다. 노적봉에 가면 빠꾸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꾀꼬리 울음소리도 들릴 테지요. 주민들 모두가 사랑하는 노적봉입니다. 오고가면서 담배꽂초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꽃잎과 나뭇잎 떨어진 것은 보아도 휴지 한 장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중도덕 지키기를 한사로 거부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길바닥에 회색회색한 것들이 보이지요. 저 까치란 놈들이 나무에서 대소변을 깔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놈들도 염치는 아는지 낮에는 참고 밤에만 보아, 길 걷는 사람들이 까지 똥 뒤집어쫘다고 비명 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저 구름다리를 넘어가면 일동입니다. 바로 성호공원이지요. 성호기념관이 있고 식물원이 있습니다. 안산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입니다.

이선희 명예기자 <imy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성포도서관, ‘신비로운 곤충 생태이야기’ 체험프로그램 “우리 집 근처에는 어떤 곤충이 살고 있을까?”

성포도서관은 곤충생태연구소 한영식 소장의 ‘신비로운 곤충 생태이야기’의 연장선 상에서 5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월 1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야외체험 첫날인 5월 15일, 성포도서관 옆 산책로 입구에서부터 잠자리채를 든 30여 명의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듯 나뭇잎을 뒤집어보고 풀을 헤집으며 곤충을 찾아다녔다.

샛노란 무당벌레 알이 촘촘히 박힌 나뭇잎을 발견하고 쭉쭉 엄마한테 달려가 자랑스레 나뭇잎을 보여주는 아이. 축축한 낙엽을 뒤적이다 꿈틀거리는 지렁이에게 “지렁이야, 안녕?”하며 다시 낙엽을 덮어주는 아이들은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 옆에서 송진이 묻은 옷을 걱정하는 엄마의 얼굴이 대조된다.

아이들은 유충과 애벌레, 성충 등 곤충을 비닐봉지에 담아 강사에게 내밀고, 한영식 강사는 네임펜으로 이름을 써준다. 늑대거미, 물결애기 자나방, 곰개미, 더듬이 긴 노린재, 점휴다리 잡초노린재, 밤나방, 목 가는 명대벌레, 고동털개미, 아시아실잠자리, 꼬마꽃등애, 벌대모벌, 우수리등굴먼지벌레, 자루맵시벌, 칠성무당벌레 등 10평 남짓 공간에서 많은 곤충들이 등장했다.

약수터 옆 개구리습지에는 부처꽃, 고랭이, 부들, 창포, 돌단풍, 물질경이, 물배추, 어리연 등 수초가 이름표를 달고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가방 속 물통을 마다하고 약수터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은은하게 아카시아 향이 퍼지는 산책로에는 꽃잔디, 바람결사랑, 기린초, 맥문동이 시선을 끌고, 이에 질세라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온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있는 음나무 옆길로 30m쯤 올라가 ‘숲속 생태학습장’에 다다랐다. 나무탁자 주위로 모여 앉은 아이들은 루페와 돋보기로 자신이 채집한 곤충을 살폈다. 그리고 옆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 좀 봐. 이름이 ‘응애래. 히히!”, “넌



숲속 생태학습장에서 아이들이 채집한 곤충을 관찰하고 있다.

이런 거 있어?”라며 으스대는 아이도 있다.

한영식 강사는 아이들이 채집한 다양한 곤충의 이름과 먹이사슬, 유충과 성충에 대해 설명해주고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며 듣는다. 밤나방 애벌레를 나뭇가지에 올려 옆 친구에게 전달할 때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다.

검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애벌레를 이동시킬 때 무척 간지러워하던 목민준 어린이(5세, 양상동)는 “벌레가 내 손 안에서 서 있었어요.”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이지연 씨(42세, 고잔동)는 “평소 곤충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과천과학관에 서 주1회 여는 곤충생태 숲체험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의 곤충에 대해 직접 채집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아이들에게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보다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영식 강사는 “자연을 접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발산할 기회가 없어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숲이 제공하는 좋은 공기와 환경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 크게 싸우지 않

는다. 또한 아동발달단계를 보면 유아부터 초등학생 시기에는 식물체험보다 역동적인 주제인 곤충을 체험하는 자연학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뉘뉘뉘뉘 지는 해가 잠자리채를 겹겹이 세워놓은 왕벚나무를 따라 비스듬히 기울 어지다 나뭇가지 위에 걸린 새 집을 비춘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봉투를 열어 곤충들을 자연의 품으로 보내주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아줌마들의 화려한 변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며 스트레스 풀어요!



루나밴드 멤버(왼쪽부터) 김미정(키보드), 강미향(1st 기타), 홍은나(보컬), 임아숙(드럼), 오경연(2nd 기타 및 코러스), 양선옥(베이스 기타), 권미옥(신디)

경쾌한 음악으로 듣는 이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루나밴드. 원하는 곳엔 언제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루나밴드 동아리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루나밴드는 8년 전 본오동주민센터에서 취미로 악기를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악기를 배우다가 관심을 가지고 밴드팀을 만들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밴드 동아리는 특성상 오래가기 힘들다. 키보드, 드럼 등 여러 악기 등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 장소 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처음에는 예술의전당 지하를 대여해 동아리 모임을 하다가, 4년 전 안산 LetsRun

마사회 주최,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은상 수상... 실력과 아줌마 밴드

CCC(마사회, 단원구 선부광장 1로 134))에서 장소를 협찬해 줘 넓은 공간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루나밴드는 줌마밴드로 시작했다가 LetsRun CCC에 자리를 잡으면서 루나밴드로 밴드 이름을 바꾸었다. ‘루나’는 달의 여신이다. 달의 여신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얼핏 들으면 누나(루나)가 연상되는 친근하고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변경했

다. 현재 1기 회원 7명과 2기 회원 4명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가을 LetsRun CCC 주최로 과천 경마공원에서 열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예심을 거쳐 16팀이 본선에 올라 은상을 수상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루나밴드 카페를 보고 미군부대 밴드 초청으로 대학팀과 일반인 팀 그리고 루나밴드 등이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6월 5일 석호초에서 열린 작은음악회에서 공연을 하는 등 안산 지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들은 모두 가정주부다. 직장을 다니며 가정생활과 취미생활을 하는 회원들도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한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연습시간 만큼은 힘이 붙곤 한다고 한다. 루나 밴드는 오는 7월 사2동 작은음악회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11월에 콘서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회원들은 “악기를 다루는 것은 성취감이 있는 것 같다. 주부들이 운동하고 헬스도 하지만 밴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멤버가 자기 파트를 책임감 있게 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성취감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늘 음악을 접하니 젊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최진영 단장은 “공연하는 완성된 모습은 쉽고 화려해 보인다. 각자 악기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이뤄야 한다. 각자의 소리로 하모니를 이뤄내야 하기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욱 기쁘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열심히 하는 실력 있는 밴드다.”라며 지도소감을 전했다.

무대만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목표였다는 루나밴드. 그 목표를 이룬 회원들은 서로 믿고 의지할 만한 실력과 자신감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공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밴드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밴드 활동에 관심 있다면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자.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몽골에서 온 악단축축 씨의 안산살이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뭐”



“시민시장 옆 빌라에 살아요. 저녁에 아무 때라도 오세요.”라는 서글서글한 목소리에 부담감 없이 악단축축 씨(41세)의 집을 찾았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이웃을 대하듯 처음 보는 나를 맞았다.

15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해, 몽골에서는 물론 국제대회에서 동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한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녀의 고향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홀로 9남매를 키웠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빠 둘, 언니 셋,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 사이에서 악단축축 씨는 늘 아버지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고 싶었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다녀간 한국이 익숙했다.

악단축축 씨는 1998년에 한국에 사는 친구 집에 왔다가 우연히 남편 신원식 씨(42세)를 만났다. 태권도 선수인 한국 청년과 유도 선수인 몽골 아가씨는 첫눈에 마음이 통했다고 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었다.

양측 부모는 쉽사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을 택했고, 현재 큰아들 동기(13세), 작은 아들 민성(8세), 막내딸(5세)을 둔 다복한 가정이 되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왜 힘들다고 생각하느냐”며 반문한다.

“우리 가족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국적만 다르지 한국의 다른 부부와 똑같이 살고 있어요. 마음이 넓은 남편은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해요.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족 모두가 집안일을 서로 돕고,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온 가족이 모여 만두도 빚어 먹으며 행복해요.”라며 음식, 문화, 풍습이 달라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3년 지나니 관찮아졌다고 한다.

그녀는 귀한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고,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던 남편이 있는 한국이 참 좋다고 한다.

남편 자량이 한창인 시간에 그녀의 남편 원식 씨가 귀가를 했다. 퇴근한 남편에게 이들의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고, 얘기를 들으며 대꾸해주는 부부의 모습이 무척 다정하다.

한국에서 결혼해 산 지 14년. 아이를 하나 둘 낳을 때마다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았던 악단축축 씨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동태찌개를 맛있게 끓인다고 한다.

명절 때, 시댁에서 ‘동기 엄마, 내 며느리,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편하다는 그녀, 악단축축 씨는 시민시장에서 술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죠, 뭐”라며 웃는다.

그녀의 집에는 칭기즈 칸의 사진과 족자가 방마다 걸려 있었다. 그녀의 쾌활함은 강력한 리더십, 불굴의 의지, 진취적 기상으로 천하를 평정했던 칭기즈 칸에게서 비롯되는 것일까.

돌아오는 길, 시민시장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남자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그렇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다.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한 행보 시작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 구단 벤치마킹과 후원회 조직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 구단 벤치마킹과 후원회 조직

안산경찰청프로축구단 구단주를 겸하고 있는 안산시장은 김필호 축구단 대표, 성준모 안산시의회 의장, 신성철 부의장, 김진희 시의원, 관계부처 공무원 등과 함께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를 방문,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J리그 반포레 고후 구단을 벤치마킹했다.

방문단 일행은 5월 10일 일본 고후시 홈구장에서 열린 반포레 고후와 쇼난 벨마레의 맞대결을 지켜보며 고후 구단의 홈경기 운영 방식과 경기장을 가득 메운 지역주민들의 응원현장을 살펴봤다.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는 시민들과 광고보드를 꽉 채운 광고 스폰들은 14년 연속 구단살림을 흑자로 이끈 반포레 고후 팀의 경영노하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반포레 고후 팀은 J리그 최하위 성적으로 1부와 2부 리그를 넘나들면서 구단이 도산

위기에 처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14년 연속 흑자라는 놀라운 경영 성과를 내며 일본은 물론 한국축구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팀이다.

고후시 관계자는 “시가 구단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구단출범과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뿐으로 구단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구단살림을 흑자로 이끌어 왔다.”고 말했다.

반포레 고후 우미노 가즈유키 구단 회장은 “구단이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탄실한 흑자 경영구조로 변한 것은 지역 밀착형 경영 덕분”이라며 “경비절감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면서 매출이 늘고 흑자경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나

아가는 데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면서 “지역밀착형 구단운영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애정으로, 구단이 다양한 마케팅 기법도 도입해야 하지만 사회 공헌사업 등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반포레 고후 팀을 벤치마킹해 얻은 아이디어를 모티브로 삼아 조직한 후원회원 위촉식이 열렸다.

인구 19만 명의 소도시에 연고를 둔 고후 팀이 연고지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단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선수환 구조를 갖게 된 점에 착안한 제종길 안산시장은 경찰청 프로축구단을 반포레 고후처럼 시민구단으로 전환시킬 의향을 나타냈다.

“안산 스마트허브에는 1만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다. 경찰청 프로축구단을 시의

자랑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지역 내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려 기업의 스폰을 받고 건전하게 팀을 운영한다면 4~5년 후에는 남부럽지 않은 구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후원회원 위촉식 취지를 말했다.

후원회 이환봉 회장은 “후원회장 자리가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 안산시민으로서 안산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후원회장직을 수행하겠다. 후원회는 축구단과 안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안산시는 후원업체로 나선 이들을 위해 홈구장 특별석(W석)을 배정하고, 후원회원 전용 주차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회원 유니폼과 머플러, 선수들이 사인한 축구공을 증정하고 구단 홈페이지에 후원회 명단을 게시한다. 시는 구단을 돕기 위해 후원회에 가입한 업체들을 위한 홍보 마케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백미란 명예기자(whity0218@naver.com)



안전!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호수공원에서 ‘2015 굿모닝 어린이 119 페스티벌’ 열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안전문화체험도 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2015 굿모닝 어린이 119 페스티벌’을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안산 호수공원에서 열었다.

경기도 34개 소방서에서 참가한 이번 행사는 현장체험 위주의 축제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14개 콘텐츠로 구성된 1코스에서는 ‘안전

한 등하교 길’을 주제로 가정에서부터 등하교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체험코너가 마련돼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물소화기 체험을 한 유정현 군(10세, 고잔동)은 “소화기를 직접 작동해 본 건 처음이다. 이제는 진짜로 불이 나도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 안전운행 코너에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보호 장비를 꼭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자전거 운전 실기시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

2코스는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여행’을 주

제로 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지진체험, 미로 연기탈출체험, 로프 매듭법, 재난훈련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고 걸으면 맥주 1병 반을 마신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음주체험 부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특수 안경을 쓰고 파란 줄을 따라 걸으라는 안내에 따라 걸던 서진영 양(12세, 수원)은 “뚝바로 걷는 것 같았는데 안경을 벗고 보니 이상한 방향으로 걸었다. 우리 아빠도 가끔 술을 조금만 마셨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못하게 할 거다.”

라고 말했다.

3코스는 ‘119 시간여행’을 주제로 조선시대 궁중소방대 체험부터 현재 소방복장의 변천사까지 소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4코스에는 수륙양용장갑차와 소방헬기, 고가 사다리차, 제트스키, 산악구조장비 등 재난안전장비를 전시했다. 수륙양용장갑차에 오른 한주원 군(10세, 본오동)은 “TV에서 봤을 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올라와 보니 더 멋있다.”고 말했다.

30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소방기수단의 퍼레이드와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안전체험을 게임하듯 즐기는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가 안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소망한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몸이 기억하는 지식은 오래 지속되고 훨씬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다.

김은미 명예기자(iami34@hanmail.net)

안산시의회 의원, 부곡복지관에서 ‘나눔의 날’ 봉사활동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상록구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과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민근, 박은경, 김동수, 이상숙 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2시간 가량 배식 봉사를 하며 경로식당의 일손을 도왔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평소 지역 노인들과 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도 노인 등 80여 명의 이용객들이 이 식당을 찾았다.

의원들은 이용객들에게 음식을 배식하고 잔반처리와 설거지, 커피 대접을 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몇몇 노인들은 의원들의 손을 맞잡고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해, 봉사시간 동안 훈훈한 분위기가 자주 연출됐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나눔의 날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조금이라도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6대 의회부터 매달 하루를 나눔의 날로 지정,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메르스 관련 市와 긴급 간담회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방역당국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각각 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안전행정국 및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시의 메르스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시는 현재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지난 1일부터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65병상의 격리병상과 마스크, 손세정제 등 5만5천800여 개의 방역물품을 확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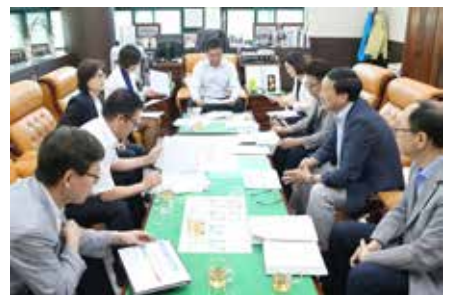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메르스 예방 및 신고안내에 대한 홍보를 시·구청·동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와 LED 전광판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두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메르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고히 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메르스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35명으로 늘었으나, 안산 지역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 안산시의회



“아이들 급식,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 캠페인 열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민 캠페인 열려

학교와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공공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산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 제정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안산문화광장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산 시민 캠페인이 열렸다.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안산 네트워크’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의식 조사와 청소년들의 퍼포먼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활동이 펼쳐졌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인해 방사능 위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92.6%)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어패류 등의 수산물오염(52.9%)’을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초동모임이 지난 2월 처음 시작됐다. 이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

산YWCA, 안산경실련 등 19개 단체와 안산시의회 나정숙, 박은경, 전준호 의원 등 6명의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방사능안전 학교급식 안산 네트워크’를 구성해 조례제정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트워크가 추진하는 ‘안산시 방사능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는 공공급식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쓰는 식자재 방사능 검사 의무화,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및 결과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방사능 보호복과 방독면을 쓰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전준호 의원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월호 이후 도시안전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 방사능 물질을 주목하게 됐다.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오랫동안 공공급식을 먹을텐데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도 가지고 있어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시민들도 식재료를 신뢰하고 먹을 수 있다.”

더운 날씨에도 피켓을 들고 안산문화광장을 돌며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경일관광고 천예함 학생은 “남들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 먹는 급식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앞으로 방사능 관련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의 : 방사능안전학교급식안산네트워크
•전화 : 031-483-6536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독/자/투/고

대부동 수박농가 농민의 땀방울을 씻겨드리며

“닐리리야, 닐리리야 나나노~”

“콩밭 매느~은 아나네에야~”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 날.

무슨 잔치라도 벌어지듯 단지 안은 축제 분위기다. 한달에 한두번씩 열리는 직거래 장날은 우리 농산물을 싸게 사는 기쁨도 있지만 그나마 바쁜 탓에 서로 얼굴들조차 마주 대하지 못했던 이웃들과 만나 지난 얘기도 하고 아이들 학교 얘기도 듣고 이런저런 정보도 교환할 수 있으니 마냥 좋다.

수박, 참외, 오이는 물론 쌀과 감자 등 없는 게 없어서 눈요기도 하고 마침 돼지고기 바비큐도 하길래 아이들 줄 요량으로 그것과 상추 깃잎과 수박까지 한통 샀다.

우리 대부동에서 비닐하우스에 수박 농사를 짓는다는 장터의 농민은 수박을 한통 팔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농민은 아이들 둘을 대학을 보내는데 요즘 학비가 너무나 비싸 농촌에서 자식 가르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전에는 수박농사 지으면 그냥 경매장에 내다 팔거나 밭떼기로 내놔지만 몇 년전에 자기가 1통에 4,000원에 판 수박이 도시 소비자들



에게 12,000원에 팔리는 걸 보고 충격 받아 이렇게 직거래 장터로 들고 나왔다시길래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흰 이를 드러내 보이시며 하회탈 처럼 밝게 웃으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째 한통에 12,000원이나 받는 수박이 내한테는 기껏 4,000원입니까?”라며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신다. 그나마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다니시니까 조금 힘들기

는 해도 소득은 훨씬 높으며 환하게 웃어주신다.

“많이 파세요. 그리고 맛있고 단 수박 많이 많이 생산해 돈 많이 버세요.” 인사를 나누는 나도 맘이 편하고 기분이 좋았다.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는 5일에 한번씩서는 장날이 가장 기다려지던 추억이 있다. 엄마 손잡고 따라가 땀땀기에 풀빵 사먹는

맛이 일품이었으니까. 그나마 요즘도 아쉬운대로 이처럼 도시에서 하는 우리농산물 직거래장이 있으니 예전만은 못해도 우리가 자랄 때 느꼈던 시골 장맛을 조금은 맛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신토불이라 했다. ‘우리 몸에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우리 농산물 맛과 신선함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장터를 찾게 된다. 우리 농산물로 차려진 식단은 굳이 따로 돈들일 필요 없는 웰빙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수입 농산물의 피해를 막아 도시인들은 안전하고 농민들은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직거래 장터가 우리 안산시 아파트 곳곳마다 더욱 크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농민과 도시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고 우리 농촌이 살수 있는 길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올 한해가 다갈 때까지 안산시 농민들의 농산물이 풍성하게 풍년들고 더 어깨가 쫄려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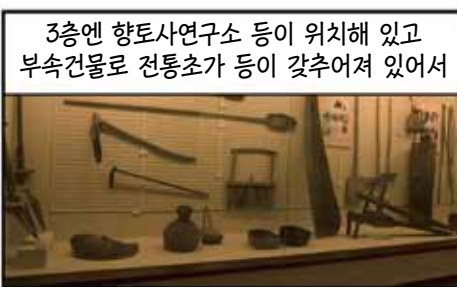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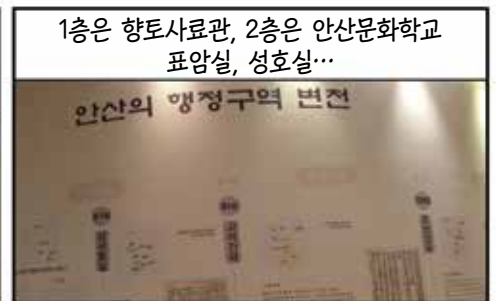
송은숙 (단원구 선부동)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인산의 자랑

<안산문화원>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사동 1586-1) • 문의 : 031-415-0041~2

